

울산, 대구 지역 대학생의 결혼 전 독립생활을 위한 주거계획

Housing Aspirations of College Students from Post Graduation to Pre Marriage

양세화(Yang, Sehwa)¹, 김묘정(Kim, Myo-Jung)^{2*}

¹Department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Ulsan University

²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Ulsa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housing considerations of college students from post graduation to pre marriage. The data came from the survey with 267 college students in Ulsan and Daegu from November 26 through December 14, 2012 and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cross-tabulation analysis with chi-squared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ver half of the respondents desired to separate from parents for the adulthood and about forty-three percent of them wanted to live alone. Among the housing characteristics, location, utilities, housing type and facility features were important for the respondents desiring to live the single life, and specifically, apartment and efficiency with 33-66m², low monthly rents, floor plan with bedroom, kitchen and bathroom, and good public transportations were the most and primarily preferred features of housing for their future housing consideration. The variables influencing future housing preferences for the respondents were the number of roommate and preferred housing type.

▲주제어(Key Words) : 독립생활(living the single life), 주거계획(housing aspiration), 1인 가구(one-person household)

I. 서론

주거를 점유하는 주체의 단위가 전형적인 가족에서 벗어나 다양화되고 있다.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그들이 보여주는 다소 독특한 삶은 주거 점유에 있어서도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실적으로 주택유형을 비롯하여 소유형태, 주거의 규모, 근린환경과 주거의 질, 주거비 등 주거의 제반 특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요구가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와 학계, 건설업계는 이러한 요구를 주택시장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1인 가구와 이들을 위한 주거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혼자 살림하는 가구(Statistics Korea, 2005), 또는 가구원이 1명인 가구(Yuh & Yang, 2001) 등으로 정의되는 1인 가구는 결혼관의 변화로 인한 혼인율의 감소와 이혼율의 증가, 고령화, 취업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975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2%에 불과하던 1인 가구는 2010년 23.9%로 증가하였으며 서울시의 경우에는 2010년 1인 가구의 비율이 24.4%로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Statistics Korea, 2010). 2035년이 되면 인구 3명 중 1명이 '1인 가구'로 살 것으로 전망되며(Asia Business Daily, 2012. 11. 12), 이제 1인 가구는

* 본 연구는 2012년 울산대학교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이 논문은 2013년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 Kim, Myo-Jung,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University of Ulsan, 93 Daehak-ro, Nam-gu, Ulsan 680-749, Korea, Tel: +82-52-259-2872, Fax: +82-52-259-2888, E-mail: finejung@ulsan.ac.kr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가구 유형의 하나이자 새로운 소비 주체로서 시장구조 전반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주택시장과 주생활용품 시장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본 연구는 1인 가구 중에서도 소위 '싱글족'이라 불리는 미혼 1인 가구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미혼 1인 가구는 직장인,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대학원생 등 결혼을 앞두고 있는 미혼의 청년층이 주를 이루는데 2010년 인구주택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1인 가구의 2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tatistics Korea, 2010). 가족생활주기 중 후반기에 속하는 '빈둥지(empty nest)' 단계는 그 이름이 시사하듯이 대학 입학과 함께 성인이 된 자녀들이 집을 떠나 독립을 하는 시기로 미국을 비롯한 서양에서는 보편적인 일이다. 그러나 과거 우리의 상황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혼을 할 때까지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상황이 바뀌고 있다. 즉 학업이나 취업준비, 직장 또는 여러 다른 이유 등으로 인해 결혼 전에도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생활하는 것이 새로운 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선호도 젊은 층 사이에서 점차 높아지면서 원룸을 비롯한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까운 미래의 1인 가구로 주택시장에 영입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졸업 후 결혼 전까지의 독립생활을 위한 주거계획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결혼 전 독립생활을 희망하는 젊은 1인 가구가 주택시장에서 소외받지 않고 자신들의 요구에 맞는 적절한 주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이 대응함에 있어 기초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본 연구는 조사대상을 대학 재학생으로 제한하고 결혼 전 독립생활을 희망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 주거선호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흔히 20-40대에 이르는 다소 넓은 연령대의 1인 미혼가구를 대상으로 주의적 전반을 다루던 유사 주제의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를 꾀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연구목적 1> 문헌 및 선행연구를 통해 1인 가구의 주거 상황과 미혼 1인 가구의 주거 요구와 선호 등을 고찰한다.
- <연구목적 2> 울산과 대구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결혼 전 독립생활에 대한 희망 여부와 그 이유를 통해 의식을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한다.
- <연구목적 3> 독립생활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의 구체적인 주거선호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관련된 변인을 분석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1인 가구의 특성과 주거

1인 가구란 단독가구, 독거가구, 독신가구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Table 1> 참조)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표준 정의는 혼자서 살립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이다(H. Jin, Y. Hong, & G. Hong, 2009). 젊은 층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층이 다양하며 1인 가구가 된 데는 자발적 동기 외에도 이혼이나 교육, 취업준비, 사별 등의 비자발적인 동기에 의한 경우도 많다. Seoul Development Institute(2008)는 주거를 포함한 제반 특성 분석을 통해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유형을 학생, 젊은 직장인, 고시생, 독거노인, 내·외국인 노동자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들은 월소득 200만원 이하가 80%, 45%가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높은 월세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점유형태에 있어 1인 가구는 2005년 자가 31%, 전세 24%, 보증금부 월세 40%로 월세의 비율이 높으며, 특히 서

Table 1. Definitions of One-Person Household

Author	Year	Terms for One-Person Household	Definitions of One-Person Household
Bae	1993	Single Household	Household Living Alone
Yuh and Yang	2001	Single Household	Household with One Person
Statistics Korea	2005	One-Person Household	Household Living Alone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7	One-Person Household	Household Living Alone without Spouse Legally
Joongang Daily	2008	One-Person Household	Household with a Spouse Living Different Place, or not Sharing Financial Responsibilities with Spouse, or in Separation before Divorce or Weekend Couple

울의 경우 전체의 93%가 임차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자가 비율은 계속 낮아지는 반면 전세와 월세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로 2012년 현재 48.8%가 월세로 살고 있다.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도시지역 1인 가구의 자가 점유율은 20%에 지나지 않지만 비도시지역은 68.1%가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에 상관없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가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시지역의 1인 가구는 자가 비율이 높고 노인 가구가 많은데 비해 도시지역의 경우는 비노인 가구와 임차가구의 비율이 높았다(Statistics Korea, 2010).

1인 가구를 위한 주거는 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공동주택, 소규모 건설업체 및 시행사가 건설 공급하는 다가구 단독주택, 다세대 혹은 연립주택, 임대사업자 중 매입임대사업자가 매입하여 임차로 공급하는 다가구 단독주택, 다세대 혹은 연립주택 등이 주류를 이룬다(H. Kim, 2011). 1인 가구가 거주하는 주거를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2005년 현재 단독주택이 69.8%, 아파트 18.7%, 연립/다세대 주택 5.2%로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전체 가구의 아파트 거주 비율이 증가하면서 1인 가구도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1980년 4.4%이던 아파트 거주 1인 가구의 비율은 2005년 18.7%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아파트와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약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tatistics Korea, 2010). 서울에 사는 1인 가구는 2005년 현재 약 17%가 아파트, 9%는 다세대주택, 8%는 오피스텔을 비롯한 주택이외의 거처에 사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SDI, 2008), 2012년 현재 전국 1인 가구의 59.4%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KBFNG(Kookmin Bank Financial Group), 2012).

1인 가구의 주거실태와 주거만족도는 최근 서울 근자역 인근 1인 가구를 분석한 S. Lee(2012)의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3분의 1이 소득의 30%가 넘는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었으며 보증금 수준이 낮은 월세 거주 비율이 높았다. 평균 거주기간은 짧고 소득이 낮을수록 집세나 소득 감소와 같은 비자발적인 이유로 주거이동을 하였으며 경제적 여건을 많이 고려하여 이사하였다. 임대료 수준과 소득이 낮을수록 최소 주거면적에 못 미치는 주거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대부분 이사 시 주거상향이동을 원하였다.

2. 미혼 1인 가구의 주거요구와 선호

1인 가구의 주거를 다룬 연구 중 미혼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최근 10여 년 동안 다수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것으로 Y. Yun(2001), I. Lee and S. Kang(2009), J. Jung(2010), M. Kim and S. Kang(2012) 등을 들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20대부터 40대에 이르는 1인 미혼 가구의 주거에 대한

가치와 요구, 선호 등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한 평면계획, 주택수요 등을 분석하고 있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Y. Yun(2001)의 연구는 20-34세의 1인 가구를 비표준 가구로 보고 주택수요 특성을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 1인 가구는 전형적인 표준가구와는 다른 주택수요 특성을 보였으며 소규모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높고 자가 비율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대신 단독세대주라는 용어를 사용한 J. Jung(2010)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20-30대 미혼 독신의 주택선호 요인을 분석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주변지역의 안전성과 층간소음이 미혼 1인 가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이었으며, 더불어 접근성, 경제성, 심미성 등의 질적 요건의 충족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주거 특성으로는 안전·보안시설이 잘 갖추어진 안전안심형 주택, 6-10층 거주, 주택 내부의 드레싱 확보 등이 높은 점수를 부여받았다.

I. Lee and S. Kang(2009)은 20-40대의 싱글 남녀의 라이프스타일과 주거선호 분석을 통해 1인 가구를 위한 주택계획 방향을 모색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개성을 추구할 수 있는 주택, 디지털 관련 시설·설비가 잘 갖추어진 기능적인 주택, 여가생활을 즐기며 접객행위가 가능한 주택을 선호하였다. 또한 이들은 가변형 공간구성에 높은 관심과 선호를 보였으며 프라이버시, 공간의 개방성, 향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젊은 싱글세대를 위한 다양한 주택상품의 개발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유사한 연구로 M. Kim and S. Kang(2012)은 대학생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미혼 1인 가구의 주거가치와 공간선호도를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비교하였다. 성별에 상관없이 사용중시형 주거가치관이 두드러진 반면 이웃과의 교류나 커뮤니티 활동 참여 등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주거유형으로는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선호하고 방, 거실, 부엌, 욕실이 모두 분리된 형태의 공간구성을 선호하며 침실과 거실을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여겼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울산과 대구 지역에 위치한 대학교의 재학생을 중심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도구인 설문지는 다수의 선행 연구(Kim & Kang, 2012; Lee, 2012 등)를 토대로 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과 가족사항, 현재 주거상황, 독립생활 희망 여부와 이유, 그리고 독립생활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의 구체적인 주거선호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총 300부를 배포·회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울산대학교에서 125부, 대구한의대학교에서 90부, 대구대학교에서 52부, 총 267부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17.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과 주거특성 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포를 파악하였고 결혼 전 독립생활 희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규명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독립생활에 대한 주거선호의 전반적인 특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간의 관계는 교차분석과 카이제곱 검증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IV.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및 현 주거상황

조사대상자는 남학생이 126명(47.2%), 여학생 141명(52.8%)이며 1학년과 2학년이 61.8%를 차지하였다. 조사대상자의 69.1%는 자신을 포함한 2명의 형제라고 답하였으며 13.0%는 형제가 없다고 답하였다. 형제가 있는 경우 첫째인 경우가 57.1%였다. 조사대상자가 현재까지 주로 살았던 지역은 광역시 이

상의 대도시인 경우가 63.3%로 가장 많았고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자신의 가족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특성 분포에서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64.7%로 가장 많았고, 주택규모는 99-132㎡ 미만인 30평대가 52.1%였으며, 소유형태는 자가인 경우가 7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Table 2> 참조).

조사대상자의 현재 주거상황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51.9%로 가장 많았고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이 32.3%, 그 외에 하숙이나 자취, 또는 친척집 거주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참조). 현재의 이 같은 주거상황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57.7%를 차지하였으며, 불만족을 느끼는 학생은 45명으로 전체의 16.9%를 차지하였다. 현재의 주거상황에 대해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45명에게 그에 대한 이유를 다중응답으로 물은 결과 학교와의 거리를 불만족 이유로 답한 비율(16.3%)이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공간면적(15.6%), 근린환경(14.8%)의 순이었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Category		f	%	Category		f	%
Sex	Male	126	47.2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won)	< 300	41	15.6
	Female	141	52.8		300 - 399	71	27.0
	Total	267	100.0		400 - 499	76	28.9
Age	< 20	99	37.5		500 - 599	39	14.8
	20-21	75	28.4		≥ 600	36	13.7
	22-23	54	20.5	Total	263	100.0	
	24-25	30	11.4	Structure Type	Apartment	172	64.7
	≥ 26	6	2.3		Single-Fam. H.	46	17.3
	Total	264	100.0		Row-House/Villa	33	12.4
Grade	1	120	45.5		Multi-Unit H.	7	2.6
	2	43	16.3		House with Shop	6	2.3
	3	62	23.5		Other	2	.7
	4	39	14.7	Total	266	100.0	
	Total	264	100.0	Current Housing Size (㎡)	< 66	10	3.8
No. of Siblings	1	34	13.0		66 - 98	72	27.6
	2	181	69.1		99 - 131	136	52.1
	3	45	17.2		≥ 132	43	16.5
	4	2	.8		Total	261	100.0
Total	262	100.0	Tenure Type	Own	188	73.4	
Sibling Order	First	149		57.1	Jeonse	49	19.1
	Second	107		40.0	Monthly Rent	14	5.5
	Third	5		1.9	Other	5	2.0
	Total	261		100.0	Total	256	100.0
Region Mostly Lived	Metropolitan City	169	63.3	Region Mostly Lived	Metropolitan City	78	29.2
	City	78	29.2		Gun/Myeon/Ri	20	7.5
	Gun/Myeon/Ri	20	7.5		Total	267	100.0
	Total	267	100.0				

Table 3. Current Living Arrangement

Category			Category				
	f	%		f	%		
Current Living Arrangement	With Parents	138	51.9	Reason for Dissatisfaction ¹⁾	Distance From School	22	16.3
	Dormitory	86	32.3		Space Size	21	15.6
	Living Alone	25	9.4		Neighborhood	20	14.8
	Living With Friends	11	4.1		Spatial Arrangement	18	13.3
	Living With Relatives	3	1.1		Finishing and Facilities	18	13.3
	Boarding House	2	.8		Privacy	11	8.1
	Other	1	.4		Housing Expenses	8	5.9
Total	266	100.0	Roommate		7	5.2	
Satisfaction with Current Living Arrangement	Very Satisfied	35	13.1		Neighbors	6	4.4
	Satisfied	119	44.6		Safety	4	3.0
	So-So	68	25.5	Total	135	100.0	
	Dissatisfied	37	13.9	n=45(100.0%) missing=0			
	Very Dissatisfied	8	3.0				
Total	267	100.0					

1) Multiple answers

Table 4. Consciousness of Living the Single Life Before Marriage

Category			Category					
	f	%		f	%			
Desire of Single Life	Yes	152	56.9	Possible Roommate	No Roommate	66	43.4	
	No	115	43.1		Sibling and Friends	50	32.9	
	Total	267	100.0		Anyone	18	11.8	
Reason for No	Living with Family	52	45.2		Only Sibling	13	8.6	
	Saving Living Cost	31	27.0		Other	5	3.3	
	Convenience of Living	19	16.5		Total	152	100.0	
	Uncertain Future	8	7.0		No. of Roommate	1	47	55.3
	Other	4	3.5			2	27	31.8
	Special Family Situation	1	.9			≥ 3	11	12.9
Total	115	100.0	Total			85	100.0	
Reason for Yes	Independence as a Adult	65	42.8					
	Free Life	48	31.6					
	Expectation of Living Alone	18	11.8					
	Job Condition	17	11.2					
	Other	4	2.6					
Total	152	100.0						

2. 결혼 전 독립생활에 대한 인식

1) 결혼 전 독립생활에 대한 전반적 인식 특성

전체 조사대상자 중 결혼 전까지 부모와 계속 함께 살겠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43.1%, 독립생활을 희망하는 경우는 전체의 56.9%로 나타나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의 독신생활의 인기를 뒷받침해준다(<Table 4> 참조). 부모와 함께 살기를 희망한 학생 115명 중 45.2%는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가 가족과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답하였으

며 그 외 생활비 절약(27.0%)이나 생활의 편리(16.5%)를 위해 부모와 살겠다는 응답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독립생활을 희망하는 대학생 152명이 제시한 독립의 이유는 성인으로서 독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전체의 42.8%로 가장 높았고 졸업 후 결혼 전까지 자신의 요구대로 삶을 살아보고 싶어 독립을 원한다고 답한 경우도 31.6%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도 혼자만의 생활에 대한 막연한 동경(11.8%), 직장(11.2%)도 독립생활을 희망하는 주요 이유로 꼽혔다.

독립생활 희망자의 43.4%는 혼자 살겠다고 답했으며 55.6%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수 있다고 답하였다. 동거인의 범위

Table 5.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Desire of Living the Single Life Before Marriage

Indep. Var.	Dep. Var.	Beta	S.E.	Wald (Chi-square)	Exp(B)
Sex:					
Male		.046	.284	.027	1.048
Sibling Order:					
First		.657	.279	5.44*	1.929
Region Mostly Lived:					
Metropolitan City		- .272	.301	.817	.762
Monthly Household Income(10,000won):					
400 - 499		.124	.332	.139	1.132
≥ 500		.483	.366	1.743	1.621
Size of Current Housing:					
< 99m ²		.245	.443	.306	1.278
99 - 132m ²		.396	.395	1.005	1.486
Current Living Arrangement:					
With Parents		.374	.303	1.524	1.454
Satisfaction with Current Living Arrangement		.429	.153	7.861*	1.535
-2 Log likelihood				327.865	
Model Chi-Square				17.406(df=9, sig= .043)	
Nagelkerke R ²				.089	

* $p < .05$

※ Reference group: Sex(Female), Sibling Order(Not the First), Region Mostly Lived(Not the Metropolitan City), Monthly Household Income(10,000won)(<400), Size of Current Housing($\geq 132m^2$), Current Living Arrangement (Not with Parents)

에 대해서는 8.6%만이 형제·자매만 허용하며, 32.9%는 친구 친지까지, 11.8%는 누구라도 상관없다고 답하였다. 한편 독립생활 희망자 중 누구든 동거 가능하다고 응답한 85명을 대상으로 동거가능 인원을 알아보았다. 이들 중 55.3%가 1명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고, 2명까지 허용하는 경우는 31.8%, 그리고 3명 이상도 괜찮다는 경우가 12.9%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가능 범위가 친구와 친지까지 확대되고 동거가능 인원이 둘 이상 되어도 괜찮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은 월세와 관리비 등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 주요 이유의 하나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2) 독립생활 희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독립생활 희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Table 5> 참조). 분석에 앞서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에 투입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하기 위해 VIF(분산팽창계수)와 Tolerance(공차한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모든 독립변인들의 VIF 값은 .76-.92 사이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로지스틱 회귀모델의 종속변인인 결혼 전 독립생활 희망여부에 대한 설명력은 8.9%였다($R^2 = .089$).

대학생의 독립생활 희망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형제 서열(둘째 이상)과 현재의 주거상황에 대한 만족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형제 서열이 둘째 이상일 때보다 첫째일 경우, 그리고 현재의 주거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독립생활을 희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결혼 전 독립생활 희망자의 주거선호

1) 주거선호의 전반적 특성

결혼 전 독립생활 희망자의 주거선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독립생활을 원하는 152명의 응답을 추출하여 주거선택 시 고려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다중응답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Table 6> 참조). 가장 우선적인 고려사항은 위치(20.8%)였으며 많은 대학생들이 주거 위치에 따른 대중교통, 생활편의시설 등과의 접근성에 신경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고려하는 것은 주택구입이나 임대, 관리비 등과 관계가 깊은 주거비(19.3%)였으며 다음으로는 주거유형(16.9%)을 많이 고려하겠다고 답하였다.

독립생활을 위해 선호하는 주거유형은 아파트(24.3%), 오피스텔(21.0%), 원룸(18.8%)의 순으로 나타나 프라이버시 보장

Table 6. Characteristics of Housing Preference for Living the Single Life

Category				Category			
		f	%			f	%
Important Factors for Housing Decision ¹⁾	Location	95	20.8	Monthly Rent (10,000won)	< 30	94	61.8
	Housing Expenditure	88	19.3		30 - 39	51	33.6
	Structure Type	77	16.9		40 - 49	5	3.3
	Furniture and Facilities	69	15.1		≥ 50	2	1.3
	Housing Size	54	11.8	계	152	100.0	
	Ownership	52	11.4	Expenses of Maintenance (10,000won)	< 5	46	30.3
	Spatial Arrangement	21	4.6		5 - 9	85	55.9
Total	456	100.0	10 - 14		17	11.2	
n=152(100.0%) missing=0					15 - 19	2	1.3
Structure Type ¹⁾	Apartment	110	24.3	≥ 20	2	1.3	
	Officetel	95	21.0	Total	152	100.0	
	One-Room	85	18.8	Housing Fund	Parents+Own Savings+Loan	109	71.7
	Row-House/Villa	67	14.8		Own Savings and Loan	35	23.0
	Single-Fam. H.	63	13.9		Only Parents	8	5.3
	Multi-Unit H.	26	5.8		Total	152	100.0
	Gositel	6	1.3	Spatial Arrangement	1 Bdr+K.+Btrm.	79	52.0
Total	452	100.0	1 Bdr+K.+Bthr+Lvr.		43	28.3	
n=148(97.4%) missing=4					2 Bdr+K.+Bthr.+Lvr.	18	11.8
Tenure Type	Jeonse	57	37.5		1 Bdr.+Shared K. and Bthr.	12	7.9
	Own	45	29.6	Total	152	100.0	
	Monthly Rent	30	19.7	Furniture Desired ¹⁾	Closet	107	23.5
	Jeonse+Monthly Rent	20	13.2		Bed	97	21.3
	Total	152	100.0		Desk and Chair	97	21.3
Housing Size	Smaller than 33m ²	20	13.2		Dining Table and Chair	56	12.3
	33-49.5m ²	68	44.7		TV Cabinet	41	9.0
	49.5-66m ²	43	28.3	Shoes Cabinet	33	7.3	
	66-82.5m ²	13	8.6	Sofa	13	2.9	
	82.5m ² of Larger	8	5.3	Other	11	2.4	
Total	152	100.0	Total	455	100.0		
Location	Public Transportation	61	40.1	n=140(92.1%) missing=12			
	Work	34	22.4	Refrigerator	138	30.3	
	Safety	24	15.8	Gas Range	111	24.3	
	Convenient Facilities	16	10.5	Washer	85	18.6	
	Leisure Facilities	12	7.9	TV	42	9.2	
	Parents	2	1.3	Air Conditioner	41	9.0	
	Other	2	1.3	Microwave Oven	32	7.0	
Natural Environment	1	.7	Other	5	1.1		
Total	152	100.0	Audio	2	.4		
Jeonse Deposit (10,000won)	< 1,000	35	23.0	Total	456	100.0	
	1,000 - 1,999	86	56.6	n=147(96.7%) missing=5			
	2,000 - 2,999	25	16.4	Home Decoration	74	48.7	
	≥ 3,000	6	3.9	Housing Market	24	15.8	
Total	152	100.0	Neighborhood	20	13.2		
Monthly Rent Deposit (10,000won)	< 300	84	55.3	Energy Conservation	16	10.5	
	300 - 499	52	34.2	Housing Policy	13	8.6	
	500 - 699	9	5.9	Environmental Protection	5	3.3	
	≥ 700	7	4.6	Total	152	100.0	
	Total	152	100.0				

1) Multiple Answers

과 관리가 편리한 공동주택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소유형태에 대해서는 독립생활을 원하는 조사대상자의 70% 이상이 전세나 월세 또는 전월세 혼합 형태를 선호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전세(29.6%)를 지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약 68% 정도는 적절한 주거면적으로 33㎡에서 66㎡미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거의 위치 선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대중교통의 편리성(40.1%), 직장과의 거리(22.4%), 안전성(15.8%)의 순위였으며 자연환경(.7%)이나 부모 집과의 거리(1.3%)는 중요성을 두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전세를 가정할 시 보증금은 73%가 1000만원-3000만원 미만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1000만원 미만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도 23.0%나 되었다. 월세를 가정할 시 보증금은 89.5%가 500만원 미만을, 월임대료는 95.4%가 40만원 미만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 같은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은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에서는 다소 현실에 맞지 않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조사대상자가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이 적은 월세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스, 전기, 수도 등과 관련된 월평균 주택관리비로 적당하다고 여기는 금액으로는 5만원-10만원 미만이 55.9%로 가장 많았고 5만원 미만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전체의 30.3%나 되었다. 독립생활을 희망하는 대학생의 71.7%는 부모의 지원을 받으면서 본인의 저축이나 용자를 통해 주거를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적으로 본인의 힘으로 주거자금을 마련하겠다고 응답한 학생도 전체의 23.0%나 되었다. 응답자 다수가 부모의 전적인 도움보다는 어느 정도 자신의 노력을 통해 독립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긴 했지만 많은 경우

부모의 금전적인 도움을 받으려는 경향이 큼을 알 수 있다.

주거공간의 구성에 있어서는 침실 1개와 부엌 및 욕실이 별도로 갖추어진 형태를 가장 선호하였고(52.0%), 여기에 거실이 추가로 있는 공간구성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28.3%). 그러나 부엌과 욕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유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생활에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는 가구는 옷장(23.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침대(21.3%)와 책상 및 의자(21.3%)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소파와 신발장 등에 대해서는 크게 필요성을 보이지 않았다. 가전제품을 포함한 여러 가지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냉장고를 가장 필요하다고 답하였고(30.3%), 다음으로 가스레인지(24.3%), 세탁기(15.6%)의 순으로 답하였다. 이는 독립생활에 있어 식사와 빨래에 필요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생들은 주택과 관련하여 집 꾸미기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고(48.7%),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15.8%). 독립생활을 위해 우선적으로 거주공간인 주거를 선택해야 하므로 주택시장 변화나 가격관련 정보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보호와 관련된 분야(3.3%)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주거선호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결혼 전 독립생활 시의 주거선호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및 현 주거상황과 주거선호 특성 간에 교차분석을 실시하고 그 통계적 유의성을 카이제곱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동거가

Table 7. Characteristics of Housing Preference for Living the Single Life by Number of Roommates

Category	No Roommate		1		2 or More		Total		χ^2	
	f	%	f	%	f	%	f	%		
Structure Type	Apartment	18	30.0	12	26.7	13	37.1	43	30.7	13.95*
	One-Room	23	38.3	12	26.7	4	11.4	39	27.9	
	Single-Fam. H.	9	15.0	9	20.0	3	8.6	21	26.4	
	Officetel	10	16.7	12	26.7	15	42.9	37	15.0	
	Total	60	100.0	45	100.0	35	100.0	140	100.0	
Housing Size	< 33㎡	11	16.4	7	14.9	2	5.3	20	13.2	9.15*
	33 - 65㎡	48	71.6	37	78.7	26	68.4	111	73.0	
	≥ 66㎡	8	11.9	3	6.4	10	26.3	21	13.8	
	Total	67	100.0	47	100.0	38	100.0	152	100.0	
Expenses of Maintenance (10,000won)	< 5	21	31.3	20	42.6	5	13.2	46	30.3	13.87**
	5 - 9	41	61.2	21	44.7	23	60.5	85	55.9	
	≥ 10	5	7.5	6	12.6	10	26.3	21	13.8	
	Total	67	100.0	47	100.0	38	100.0	152	100.0	

*p < .05, **p < .01

Table 8. Characteristics of Housing Preference for Living the Single Life by Structure Type Desired

Category		Apartment		Officetel		One-Room		Single-Fam. H		Total		χ^2
		f	%	f	%	f	%	f	%	f	%	
Housing Size	< 33m ²	3	7.0	2	5.4	11	28.2	2	9.5	18	12.9	20.26**
	33 - 65m ²	33	76.7	30	81.1	28	71.8	13	61.9	104	74.2	
	≥ 66m ²	7	16.3	5	13.5	-	-	6	28.6	18	12.9	
	Total	43	100.0	37	100.0	39	100.0	21	100.0	140	100.0	
Tenure Type	Own	22	68.8	5	15.2	4	10.8	11	57.9	42	34.7	37.81***
	Jeonse	8	25.0	19	57.6	19	51.4	6	31.6	52	43.0	
	Monthly Rent	2	6.3	9	27.2	14	37.8	2	10.5	27	27	
	Total	32	100.0	33	100.0	37	100.0	19	100.0	121	100.0	
Monthly Rent (10,000won)	< 30	32	74.4	16	43.2	26	66.7	13	61.9	46	32.9	18.72**
	30 - 39	10	23.3	21	56.8	12	30.8	5	23.8	78	55.7	
	≥ 40	1	2.3	-	-	1	2.4	3	14.3	16	11.4	
	Total	43	100.0	37	100.0	39	100.0	21	100.0	140	100.0	
Expenses of Maintenance (10,000won)	< 5	9	20.9	13	35.2	21	53.8	3	14.3	46	30.3	21.10**
	5 - 9	30	69.8	17	45.9	17	43.6	14	66.7	85	55.9	
	≥ 10	4	9.3	7	18.9	1	2.5	4	19.0	21	13.8	
	Total	43	100.0	37	100.0	39	100.0	21	100.0	152	100.0	
Spatial Arrangement	1 Bdr.+Shared K. and Bthr.	1	2.3	1	2.7	5	12.8	3	14.3	10	7.1	23.57**
	1 Bdr+K.+Btrm.	24	55.8	14	37.8	28	71.8	9	42.9	75	53.6	
	1 Bdr+K.+Bthr+Lvr.	11	25.6	17	45.9	6	15.4	5	23.8	39	27.9	
	2 Bdr+K.+Bthr.+Lvr.	7	16.3	5	13.6	-	-	4	19.0	16	11.4	
	Total	43	100.0	37	100.0	39	100.0	21	100.0	140	100.0	
Location	Work/Public Transportation	29	69.0	24	66.7	23	62.2	13	62.0	89	65.4	14.17*
	Leisure Facilities/Convenient Facilities	5	11.9	11	30.6	3	8.1	4	19.0	23	16.9	
	Safety	8	19.0	1	2.7	11	29.7	4	19.0	24	17.6	
	Total	42	100.0	36	100.0	37	100.0	21	100.0	136	100.0	

*p < .05, **p < .01, ***p < .001

능 인원수에 따라 선호하는 주거유형, 주거면적, 관리비가 차이가 있었다. 또 선호하는 주거유형과 주거면적, 소유형태, 월임대료, 관리비, 주거의 위치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은 동거 가능한 인원수와 유의적인 관계를 보인 주거선호 특성의 분포를 나타낸다. 선호하는 주거유형에 대해서는 1순위에 대한 응답만을 통계에 포함하였다. 혼자 살기를 희망하는 경우 원룸(38.3%)과 아파트(30.0%)를, 2명 이상 함께 거주 가능하다고 답한 집단은 오피스텔(42.9%)과 아파트(37.1%)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선호하는 주거면적에 있어서는 인원수에 상관없이 전체의 약 70%가 33-65m²를 희망하였지만 2명 이상 동거 가능하다고 답한 경우는 66m²이상을 선호하는 비율(26.3%)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33m²미만의 주택은 혼자 살기를 원하는 집단조차도 16.4%만이 선호한다고 답하여 이들을 위한 적정 주거면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관리비에

있어서도 동거가능 인원수가 많아질수록 많은 지불액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는 넓은 주거에 대한 선호 경향과 일맥상 통한다고 볼 수 있다.

독립생활을 위해 선호하는 주거유형에 따라 선호하는 주거특성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참조). 선호하는 주거유형에 대해서는 1순위에 대한 응답만을 통계에 포함하였다. 원룸을 원하는 경우 33m²미만의 면적을 선호하는 비율(28.2%)이 가장 높았고, 단독주택 선호 집단의 28.6%는 66m²이상의 상대적으로 다소 넓은 주거를 선호하였다. 주거소유형태에 있어서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경우가 자가를 선호하는 비율이 각각 68.8%와 57.6%로 현저히 높았고 반면 원룸과 오피스텔 선호하는 경우에는 월세 선호 비율이 각각 37.8%와 27.3%로 높게 나타났다.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경우 다른 유형 선호 집단에 비해 높은 월임대료를 지불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파트나 단독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월세 계약 주거라는 사회적 통념 때

문에 나온 결과로 볼 수 있다. 관리비는 원룸 선호 집단의 과반수(53.8%)가 5만원 미만의 관리비가 적당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단독주택과 오피스텔 선호 집단의 약 20%는 10만원 이상의 관리비 지불이 적절하다고 답해 그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간구성에 있어서는 오피스텔 선호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방1+부엌+욕실' 형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피스텔 선호 집단은 '방1+부엌+욕실+거실' 형태를 선호(45.9%)하여 더욱 분화된 공간구성을 원하였다. 단독주택 선호자(19%)들은 방이 2개인 공간구성을 원하는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 직장과의 거리와 대중교통의 편리성은 선호 주거유형에 상관없이 주거 위치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주거의 위치와 관련하여 두드러지는 사항은 오피스텔 희망자는 여가 문화/편의시설을, 원룸 희망자는 안전성을 두 번째로 중요한 것으로 꼽았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울산과 대구 지역에 위치한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졸업 후 결혼 전까지의 독립생활을 위한 주거계획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결혼 전 독립생활을 선택하는 미혼 1인 가구가 자신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적절한 주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이 대응함에 있어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졸업 후 결혼 전까지 독립생활을 희망하는 학생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56.9%로 과반수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을 원하는 경우 성인으로서 부모로부터의 독립 필요성을 주된 이유로 든 반면 독립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부모·가족과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형제간의 서열과 현재의 주거상황은 독립생활에 대한 희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이일수록 또는 현재의 주거상황에 만족할수록 독립생활을 희망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편적으로 만이들이 갖는 독립심과 현재의 만족스러운 제반 주거상황이 결혼 전까지의 독립생활에 대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독립생활을 희망하는 조사대상자 가운데 43.4%가 혼자 생활하겠다고 하였으며, 나머지는 형제, 친구 등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동거 가능 인원로는 과반수가 1명이 적당하다고 답하였다.

셋째, 독립생활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선택 시 위치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다음으로 주거비, 주거유형, 가구/시설/설비의 순이었다. 주거면적은 33-66㎡를 가장 적당하다고 여겼으며, 주거유형과 관련해서는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단독주택 순으로 선호하였다. 독립생활에 필요한 가구는

옷장, 침대, 책상과 의자, 식탁과 의자의 순으로, 가전제품은 냉장고, 가스레인지, 세탁기, TV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전반적으로 독립생활을 희망하는 경우 비교적 저렴한 전세나 월세의 아파트, 오피스텔, 또는 원룸을 선호하였으며, 대부분 어느 정도는 자신의 노력으로 독립생활을 영위하려는 의지는 보여지만 부모로부터의 재정적인 지원을 희망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거의 공간구성은 침실 1개와 부엌, 욕실이 있는 형태를 가장 선호하였고, 주거의 위치에 있어서는 대중교통의 편리성을 가장 우선으로 꼽았다.

넷째, 결혼 전 독립생활을 위한 주거선호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 동거 가능한 인원수에 따라 주거유형, 주거면적, 관리비에 대한 선호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혼자 살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원룸 같은 단순한 공간구성의 주거를 선호하는 경향이 컸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작은 규모보다는 어느 정도 적정한 규모의 주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친구 등과의 동거가 가능하다고 여기는 경우는 다양한 공간구성이 가능한 주거유형을 선택하고자 하였으며 동거가능 인원이 많아질수록 더 넓은 주거, 더 많은 월관리비 부담을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다섯째, 독립생활을 위한 주거유형은 주거면적, 주거소유형태, 월임대료, 주택관리비, 주거 공간의 구성, 주거 위치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룸을 선호하는 경우 전세나 월세를 선호하고, 관리비가 저렴한 작은 규모, 침실 1개와 부엌, 욕실이 있는 단순한 공간구성, 직장과의 접근성, 안전성 확보 등에 대한 선호가 강하였다. 한편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넓은 주거규모, 자거나 전세, 거실이 별도로 있는 공간 구성 등에 대한 요구가 컸다. 특히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경우 여가문화시설 및 편의시설과의 접근성을 중시하였으며, 높은 월임대료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통념상 오피스텔을 월세계약 주거로 동일시하는 데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부모로부터 떨어져 사는 독립생활에 대한 선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미혼자들 사이에서는 물론 학업 중인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도 입증되었다. 미혼자들을 위한 주거는 단순히 임시주거의 관점에서 물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논의되기보다는 이들의 독특한 생활방식과 이에 따른 주거요구를 폭넓게 고려하여 전형적인 가족을 위한 주거와는 제반 측면에서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독립생활을 희망하는 경우 월세보다는 목돈이 필요한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여전히 강하고 현실적으로 용자나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예측이 가능하다. 최근의 전세가의 가파른 상승과 전

세의 월세 전환이 새로운 추세로 대두되고 있는 임대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미혼 1인 가구를 위한 전·월세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위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셋째, 동거가능 인원수에 따라 독립생활을 위한 주거선호 특성이 차이가 있음을 감안할 때 기존의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벗어난 새로운 유형의 미혼 주택상품의 개발이 요구된다. 즉 다수의 동거인과 주거공간을 공유하는데 대해 거부감이 없는 젊은 층을 위해 한 집에서 거실, 주방, 욕실 등을 공유하며 사용하고 침실 등 개인 공간만 따로 사용하는 쉐어하우스(share house)와 같은 대안 주거의 개발은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Asia Business Daily. A Day of Mr. Kim Living Alone in 2035. 2012. 11. 13.
- Bae, H. O. (1993). A study on one person households in Korea.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16(2), 125-139.
- Jin, H. S., Hong, Y. G., & Hong, G. S. (2009). *A study on planning of the housing complex for one person household*. Paper session presented at proceedings of Spring Annual Conference of the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181-184, Gunsan, Korea.
- Joongang Daily. One-person Households Change Korea. 2008. 9. 9.
- Jung, J. W. (2010). *A study on the analysis of single householders housing preference fact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g Woon University, Seoul, Korea.
- KBFNG(Kookmin Bank Financial Group)(2012). An Analysis of Housing Characteristics of One-Person Households. KB daily Vitamin 65.
- Kim, H. R. (2011). *A study on the small-sized housing for single household*.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Seoul, Korea.
- Kim, M. S., & Kang, S. J. (2012). *A comparative study on housing value and needs in single male & female's households*. Paper session presented at proceedings of Autumn Annual Conference of Korean Housing Association, Naju, Korea.
-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7). Survey of Family Consciousness and Living Conditions of Not-married One-person Households.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Lee, I. S. & Kang, S. J. (2009). *A study on the housing planning according to the lifestyle of one-person households*. Paper session presented at proceedings of Autumn Annual Conference of Korean Housing Association, Seoul, Korea.
- Lee, S. H. (2012). *A study of housing condition and satisfaction level of one-person household*.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jong University, Seoul, Korea.
- Seoul Development Institute. (2008). *518 Neighborhoods in Seoul with Single-Person Households*. Seoul Development Institute.
- Statistics Korea(2005).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 Statistics Korea(2010).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 Yuh, Y. K., & Yang, S. J. (2001). Differences in consumption patterns of various household typ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12(4), 65-81.
- Yun, H. L. (2001). *A study of housing demand characteristics of non-standard household*.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접수일 : 2013년 12월 12일
- 심사일 : 2014년 02월 15일
- 게재확정일 : 2014년 03월 14일